

家具의 造形的 要素로서 아크릴 Objet에 관한 研究
-겨울, 산, 샘의 주제를 중심으로-^{*1)}

김 광 렬^{*2)}

A Study on the *Acryl Object* as Artistic element
to the Furniture
- Centering around the subject
of WINTER, MOUNT, SPRING -
Kim, Kwang-Roul

목 차

1. 서론	3. 오브제의 정의
1-1 연구목적	4. 작품연구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결론
2. 재료연구	
2-1 유리의 특성	
2-2 아크릴의 특성	
2-3 제작기법연구	

ABSTRACT

In furniture design, it is very important to choose adequate materials. Transparent materials provide expectations and reveals unique effects unlike others. As transparent materials, glass and acrylic have light and fresh impression from their transparency, and are frequently used in structuring neat space.

Despite its good merits, glass is not able to satisfy designers desire in making various shape and structure. It has defect in manufacturing process because it requires professional, specialized studio.

Compared to glass, acrylic has its merit in processing and stability, and also is very economical. Acrylic is easily used with woodworking tool. In addition, acrylic has unique texture.

This study is on the attempt to apply acrylic to the furniture as artistic element.

* 1) 이 논문은 2001학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 Dept. of Furniture Design, College of Arts, Hyup Sung University, Hwasung 445-745, Korea

1. 서론

1-1. 연구목적

디자인과정에 있어서 형태와 기능을 구성하는 주재료와 부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주재료는 가구의 몸통과 규격 등 외형디자인을 결정하는 하드웨어이고, 부재료는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재료는 적절한 디자인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의 새로운 매개체로 태어나게된다. 그러나 동일한 주·부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서 유사한 디자인의 가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디자인방법이나 디자이너와 작가의 감성과 조형감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나 작가가 주·부 재료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조형적 요소를 전체형태에 적용하여 디자인하거나 특정부분에만 장식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디자인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리에 비해 표면강도가 낮은 이유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아크릴을 오브제 작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는 높이는 한편, 가구장식의 부분적 조형요소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NATURE」라는 큰 주제에서 출발하여 「WINTER, MOUNT, SPRING」이란 소 주제를 구성하였다. 대 주제를 바탕으로 소 주제의 이미지를 질감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순화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스케치와 비누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오브제 개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외형적 물성이 유사한 유리와 아크릴의 일반적인 특성과 작업기법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초적인 조각기법을 이용한 아크릴의 표면처리와 함께 재료의 질감표현을 고찰하였다. 작품의 규격을 형태에 따른 가공 방법과 조형의 연구를 위해 95×95×50mm로 제한하였으며, 일부 조명 관련

소품은 주제에 적합하도록 비 규격으로 작업하였다.

2. 재료연구

재료를 떠나서 실제적인 형태를 상상할 수는 없다. 그 형태는 그 재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료의 특징을 알고 재료의 성질에 따라 작업하며 그 성질에 순응해서 조형 과정을 완성해야 된다. 조형적 상상력은 크게 활용해야 되지만 항상 재료의 지식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¹⁾라고 하였다. 재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조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한다.

유리와 아크릴 두 재료의 일반적인 외형의 물성을 비교하면 투명성과 빛의 투과성, 빛의 굴절 등은 거의 동일하지만 주성분이나 제조과정, 종류, 가공성, 강도 등을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2-1. 유리의 특성

유리의 주성분은 규사, 규석 등의 규산질과 탄산소다, 탄산칼리 등의 알칼리질, 그리고 석회석 등의 알칼리토류질 등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²⁾ 성질은 성분, 제작기법 등에 의한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2-1-1. 비중과 강도

소오다 석회 유리의 비중은 2.4, 납과 바륨을 함유한 것은 6.5이다. 강도와 탄성은 성분, 크기,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서 판유리의 압축강도는 8800~9300Kg/cm²이고, 인장강도는 400~600Kg/cm²이며, 탄성 계수는 72,000Kg/cm²이고, 휨강도는 750~230Kg/cm²이다. 알칼리 성분이 많은 유리는 항장력, 압축강도가 작게 나타난다.

- 1) 이경성. 1970. 공예통론. 67쪽. 수학사. 서울, 한국
- 2) 임연웅. 1984. 공예재료가공기법. p211-p225. 학문사. 서울

2-1-2. 열·전기에 대한 성질

열전도율과 팽창률은 적으나 급열, 급랭하면 부분적 팽창과 수축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성질이 있다. 전기는 보통상태에서 부도체이나, 높은 습도, 수분이 있는 고온에서는 절연성이 저하된다.

2-1-3. 광학적 성질

광선의 굴절, 분산, 반사, 흡수 및 투과하는 성질이 있으며, 혼합물과 두께, 표면처리, 청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2. 아크릴의 특성

천연가스가 주원료인 아크릴은 맑고 투명한 단 분자의 액체이다. 여기에 적당량의 고휘화 촉매제를 첨가해 가열하면 MMA가 고분자로 결합하면서 경화되는 것이다. 촉매제를 넣어 경화시킨 아크릴 판의 최종 원료는 Methyl Methacrylate(MMA)라고 한다. 아크릴과 유사한 플라스틱류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변색이 되지만 아크릴은 분자결합이 극히 안정적이어서 변색되지 않으며, 투명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크릴의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불완전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변색될 수도 있다.

또한 아크릴은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로서 성형이 쉽게 이루어지며, 충격흡수와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빛의 투과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주변의 온도 변화에 대해 다른 재료에 비해 수축 팽창이 큰 편이다. 아크릴은 대략 매 10℃변화에 1000mm 길이 당 약 0.0015mm 정도의 팽창률을 보인다.

아크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1. 투명성

빛의 투과율이 92%에 달하며, 모든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성이 가장 탁월하다.

2-2-2. 강도

같은 두께의 유리에 비하여 6~17배 정도의 강한 강도를 가지면서 같은 부피의 중량은 50% 정도 밖에 안 된다.

2-2-3. 내후성

건축이나 환경디자인재료로 많이 쓰일 만큼 기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2-4. 내화학성

암모니아와 같은 무기 알칼리성, 핵산, 산성 용액, 나프타, 옥탄 등에 강한 내구성을 갖는다.

2-2-5. 가연성

454℃~465℃에서 자연 발화하며,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287℃~298℃에서 점화된다. 이것은 나무에 비해 높은 점화점을 보이는 것이며, 발화가 되었을 때 종이나 나무가 타는 정도의 가스나 연기가 발생한다.

2-2-6. 내열성

최대 내열 온도는 82℃~93℃이며, 약 125℃ 정도부터 유연해지기 시작해 150℃가 되면 열 성형이 가능해진다. 저온에서는 매우 강해져서 잘 깨지지 않는다.

2-2-7. 열전도

열전도율은 같은 두께의 유리에 비해 20% 정도 낮게 나타나 보온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2-8. 가공성

일반 목공용 도구로 작업이 가능하여 가공성은 매우 뛰어나다.

2-3. 제작기법 연구

유리의 성형기법에는 불기성형과 압형성형, 판형이 있으며, 표면가공 처리에는 유리에나멜 소착(燒着)기법, 금속소착기법, 커트글라스 기법, 그래빌, 부식, 샌드블래스트 등이 있다. 가구에 사용되는 작업은 대부분 판유리 상태에서 샌드블래스트 기법, 유리에나멜 소착기법 등을 이용하여 표면에 문양처리를 하거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등 그 기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형태에 그

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가구디자이너가 유리의 다양한 성형기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디자이너의 요구에 알맞도록 성형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설과 숙련된 기술자, 고비용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가공기법에는 사출성형, 압출성형, 블로우성형, 금형 성형이 있는데, 금형 기법에는 Flash Type(平面型=開放型), Semi Positive Type(半押入型), Positive Type(押入型=密閉型), Transfer Type(注入型)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크릴은 열가소성수지로서 거의 모든 형상의 성형이 가능하며, 절단, 절삭, 천공, 조각, 연마 등의 기계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으며, 다양한 두께의 판형과 봉형, 관형의 제품들이 있다. 기존의 제품을 가열해서 판형을 휘거나 구부릴 수 있으며, 캐스팅 방법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 유리와 같은 투명성과 훌륭한 외관, 그리고 비싼 도구 없이도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제품모형을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러나 가구제작에는 아크릴의 장점을 살린 디자인보다는 주로 판형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크릴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크릴만이 갖고있는 재질감을 활용하여 가구의 부분적 조형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조각기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2-3-1. 아크릴 조각기법연구

아크릴은 분자결합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결정체이어서 나무와 같이 결의 방향을 고려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작업할 수 있어 작업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아크릴의 강도만큼이나 강한 반발력으로 인해 작업 중에 파편이 심하게 안면 방향으로 튀어 얼굴과 노출된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재료의 면과 칼의 경사각도가 예각 일 경우 칼끝이 표면에 박히는 성질이 있다. 이로 인해 균열이 깊이 생겨 세밀한 조각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접착제를 사용해도 접착면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 종료 시까지 작품표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종이나 비닐로 접촉된 피막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아크릴의 투명한 표면이 바이스나 작업대 바닥의 이물질에 의해 흠집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아크릴의 조각은 목공용 기계나 전동공구, 수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바이스, 전기드릴, 직쏘우, 쥐꼬리톱, 끌 set, 나무망치, 줄칼(중간 거칠기), 고글이나 안전망, 디스크 쏘우 등이다.

2-3-2. 끌의 사용방법

끌은 나무를 조각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아크릴을 조각하기에도 무리하지 않다. 그러나 작업에 따라 칼날의 경사각 조건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아크릴이 갖고있는 반발탄성과 강도가 칼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초기작업에는 쇠파치나 큰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덩어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칼끝에 많은 힘이 전달되므로 칼날의 경사각을 약 $\angle 25^{\circ} \sim 27^{\circ}$ 정도로 각을 많이 주어 힘있게 조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끌에 의해 조각된 표면에는 눈매 형태가 약 $\phi 2\text{mm} \sim 3\text{mm}$ 정도 크기의 둥근 타원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끌질의 PATTERN은 끌과 망치의 종류에 따라 거칠기와 크기가 다르게 깨지는 현상을 보인다. 작업 중에는 아크릴 파편이 반발 탄성으로 강하게 튀어 날카로운 부분이 눈과 안면 부위에 상처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경과 마스크, 또는 안전망이 있는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마무리 조각에는 약 $\angle 22^{\circ} \sim 24^{\circ}$ 정도 경사날의 끌과 작은 나무 망치를 사용하는데, 눈매의 PATTERN이 약 $\phi 0.5\text{mm} \sim 1\text{mm}$ 이하 정도 크기로 곱게 나타난다. 그러나 약간 강한 힘이 주어지면 날 끝이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 깨진 날로 인해 굵은 패턴이 생기므로 힘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칼날이 $\angle 20^\circ$ 이하의 경사 날은 매우 고운 표면 패턴을 표현할 때 사용하지만 쉽게 날 끝이 깨져 번거롭게 되므로 고 강도의 금속 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3. 전동공구

가구제작용 일반 전동공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작업 시 절삭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분말가루가 생긴다. 이 분말가루는 모타의 바람으로 인해 쉽게 공기 중에 떠다니므로 호흡기로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드릴과 직쏘우는 외형을 오려 내거나 내부 공간을 만드는데 안전하고 유용하게 자주 쓰이는 기계이다. 그리고 디스크 쏘우는 그릇형태의 내부를 정리하는데 편리하지만 회전 속도가 높고 파편이 많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 때문에 디스크 쏘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커버를 부착하고, 재료는 바이스에 물려야 하며, 면 장갑은 착용하지 말고 작업해야 한다. 둥근톱은 아크릴을 직각으로, 혹은 길이방향, 경사각으로 절단할 때 쓰이는데 둥근톱 사용이 무리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유리와 아크릴의 재료의 일반적 특징과 작업방법에 관해 비교 연구하여 보았다. 유리와 아크릴은 재료의 투명성 때문에 무게에 비해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깔끔한 느낌의 공간처리에 즐겨 사용하고 있다. 유리는 디자이너의 감각만큼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것은 재질의 특성으로 작업에 제한이 따르며, 전문적인 작업장이나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등이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아크릴은 다양한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고, 여러 제작기법을 위해 일반목공용 공구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가공성이 뛰어나다. 경제적이면서 유리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질감과 물성적으로 극히 안정적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아크릴은 좋은 오브제 재료

인 것이다. 투명한 표면부분의 강도는 유리에 비해 낮지만 전체 형태의 강도는 뛰어나며, 조각된 표면은 독특한 패턴으로 인해 스크래치(scratch)가 잘 생기지 않는다.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료의 질감 표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서 아크릴의 조각기법은 전체 조형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였다. 아크릴에서 새로운 질감을 찾아 오브제 작업에 적용했다는 점에 큰 의를 두고자 한다.

3. 오브제의 정의

오브제(Object)란 단어는 라틴어의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으로 물건, 개체, 대상, 물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성적 통제가 없는 상태, 또 모든 도덕적, 예술적 속박, 선입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로 정의하고, 일상에서 離脫된 표현을 구체적인 예술의 방법으로 삼았다. 현실의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가 아니라 상상력 또는 무의식적 합성에 의해 새로운 시적 언어(詩的言語)로 형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

본 연구작품의 규격을 95×95×50mm로 제한한 것은 그 규격을 고정 관념적 사고의 틀로 규정하고, 같은 형태의 틀 안에서 보여주는 각기 다른 사물들은 무의식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면의 세계이다. 그러한 틀 속에서 보여주는 사물의 질감은 비현실적 표현으로서 절대자의 의미를 통일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사물을 그 용도나 기능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오브제로 전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체험과 효과를 얻는 것처럼, 반대로 완성된 오브제를 일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조형적 요소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모든 미술조류에서 오브제의 활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쉬르레알리즘에 있어서 오브제란 사람과 물체가 서로 교통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즉 오브제는 회화와 조각을 서로 접근시켜 회화도 조각도 아닌 새로운 조형의 개념을 보여 주었다. 또 오브제는 예술가의 생활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물건 그 자체로 인식되어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³⁾

이와 마찬가지로 가구디자인과 조형의 관계에서도 서로 접목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4. 작품 연구

디자인의 기본요소는 자연과 조형원리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 출발한다. 일상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조형작업은 사물의 형상에 계절에 대한 감성과 내면의 심리까지 표출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유형은 95×95×50mm로 제한한 사각틀의 사물 유형과 단어가 갖는 추상적 의미를 형상화한 오브제로 구별하였다. 틀이란 정형화된 일상의 경험과 사고를 말한다. 그러한 틀 안에서 바라보는 사물은 통상적 개념으로 인식한 단순한 형태이지만 재료가 보여주는 질감으로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물을 인식하는 관념적 사고는 작업의 소재를 그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계절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절대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표현이 통일된 느낌을 준다. 주제에 대한 표현은 가구의 주재료인 목재와 식물들을 연상하게 하지만 자연의 절대자와 대화하고 있다. 절대자인 자연의 양면적인 이미지를 산의 풍성함과 너그러움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매서운 추위와 냉정함으로 겨울의 산과 관련된

소재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그 겨울 산 속에서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썸의 이미지 위에 조명의 기능으로서 불을 접목 시켰다. 이것은 추운 겨울의 이미지에 대한 상쇄적 요소로써 시각대비 효과를 더하게 했다.

<WINTER·MOUNT·SPRING>의 공통분모로 연상되는 단어로써 얼음을 선택하고, 그 질감을 주제에 알맞게 표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단단하며 견고한 아크릴을 사용하였다. 추운 겨울을 연상하게 하는 요소로서 얼음의 이미지를 재료의 질감으로 함축시키고 단순화하여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수다스럽지 않게 하였다. 자연과 절대자를 표현하기 위해 계절의 단면을 칼날의 터치로 거칠게 작업하면서, 축고 어두운 겨울의 냉정한 이미지를 절제된 형태와 질감으로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였다.

4-1. 겨울나무 (95×95×50mm)

겨울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표본 채집된 식물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드릴과 직쏘우를 이용해 외곽 틀과 나무의 형태를 오려낸 다음, 중간 크기의 둥근끝을 사용하여 나무형태의 볼륨감을 만든다. 외곽은 날의 각도가 큰 끝을 사용하여 거친 패턴을 만들지만, 중심부에 돌출된 가지나 잎새부분의 작업은 작은 각도의 칼날과 작은 망치를 이용하여 고운 패턴을 만들면서 조금씩 다듬어 마무리하였다.

캐비닛류의 Door나 큰 서랍의 복판 장식용이며, 크기를 조절하여 Pull로 사용 할 수도 있다.

4-2. 그는 사랑이시라(95×95×50mm×3ea, 조명등)

세상만물의 근원인 우주를, 완전한 숫자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그러한 의미들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인 것을 원으로 표현하였다.

3) 계간미술. 1981. 현대미술용어사전. p135. 계간미술. 서울. 한국

성서 속에서 샘은 중요한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이와 관련하여 순수의 의미로써 외곽의 형태는 자연석을 거칠게 절단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샘 근처의 돌과 물웅덩이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半球는 가운데 부분에 큰 드릴 날로 깊이를 결정한 후, 작은 둥근끝로만 작업하고 마무리하였다.

Table류의 중앙에 간접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물을 채워 양초를 띄울 수 있게 하였다.

4-3. 노아(300×250×50mm, 조명등)

물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제 받은 노아의 배를 우리나라 장독대에서 至誠 드리던 물바가지나 샘터에 비유하였다. 250×250mm 규격의 정방형에서 300×250mm의 형태를 구했다.

외곽형태는 직쏘우로, 내부는 디스크 쏘우로 대략 파내기를 한 후에 끌질로 마무리하였다.

Table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접 조명이나 악세서리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4-4. 겨울산(500×300×50mm)

추운 겨울산은 산마루에 걸쳐진 구름마저 얼려 버렸다. 구불구불한 산길에 찬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세 그루의 나무는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외곽 형태는 직쏘우와 드릴로 작업하고 둥근끝의 패턴을 달리하여 마감하였다.

4-5. 겨울새 I (95×95×50mm)

사고의 틀 속에 갇힌 겨울의 새는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겨울을 혼자 지내야하는 겨울새의 쓸쓸함을 표현하였다. 외곽의 투명함을 제거하여 얼음의 효과를 더하였다. 가구의 손잡이나 내·외부 옷걸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6. 냉정한 허브(95×95×50mm)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허브향기의 느낌이 일상관념으로 인해 차가움으로 변해버렸다. 허브 잎의 형태를 이용하여 큰 Door류의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

4-7. 겨울나무 II (95×95×50mm)

겨울 산에서 보았던 세그루의 나무를 성 삼위일체로 표현하였다. 다른 틀에서 볼 수 없었던 외곽의 자유곡선은 신비스러운 느낌을 전달한다. 직쏘우와 드릴을 사용하여 큰 형태를 만들고 끌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가구의 풍혈이나 손잡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4-8. 마르다 와 마리아(300×300×50mm)

마르다와 마리아는 샘에서 만난 그 분을 향한 마음은 똑 같았다. 그 마음의 표현을 가슴에 품은 것과 밖으로 드러난 것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디스크 쏘우로 대략 파내고 둥근끝로 마무리하였다. 디스크 쏘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과 바이스를 사용하며, 면실로 짠 장갑은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Table류의 간접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4-9. 사랑뿐(95×95×50mm×9ea)

믿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은 어디에서든 한결 같으신 분이다. 마음속에 갈급한 불이 있을 때나, 평온할 때나, 마음이 떠나간 그 자리까지도 그분의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5. 결론

현대가구의 재료는 과학의 발달과 생활 패턴의 변화, 사용자의 세대적 개념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성과 기능성 그리고 조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현대디자인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가구를 기능성보다는 조형성에 치중하여 순수 조각의 개념에서 형태를 이끌어내는 것과 가구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형적 요소를 기능과 장식의 일부분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적 요소를 찾아 가구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가구디자인의 범위를 일상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라는 산업디자인의 큰 범위와 조각개념의 입체조형물까지 의미하며,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장르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험하였다. 따라서 공예가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형적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제품에 조각의 조형적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조형적 요소를 현대가구의 장식으로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은 가구디자이너들 자신의 관심을 전체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작은 장식 디자인 일부분에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의 내면 세계와 감성의 표출을 위해서 적절한 재료의 선택과 그에 따른 제작기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조형작업에서 보여준 형태와 질감표현은 일상주변에서 접하는 사물들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여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연을 주제로 한 <WINTER · MOUNT · SPRING>의 오브제를 아크릴에 조각기법을 이용하여 일상의 소재들을 표현하였으며, 가구의 조형적 요소로 작품 10점을 실험·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김명태. 1982. 유리공예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서울, 한국
2. 김미희. 1988. 실내의 장식 재로서의 유리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한국
3. 이경성. 1970. 공예통론. 수확사. 서울, 한국
4. 임연웅. 1984. 공예재료 가공기법. 학문사. 서울, 한국
5. 안연희. 1999.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서울, 한국
6. 계간 미술. 1984. 현대미술용어사전. 계간 미술. 서울, 한국
7. 데이비드 A 라우어. 1996. 조형의 원리. 도서출판 예경. 서울, 한국
8. www.pusanacryl.com

* 작품집

1. 겨울나무
2. 그는 사랑이시라
3. 노아
4. 겨울산
5. 겨울새 I
6. 냉정한 허브
7. 겨울나무 II
8. 마르다 와 마리아
9. 사랑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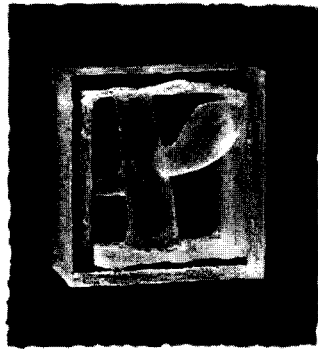


그림 1. 겨울나무 · 95×95×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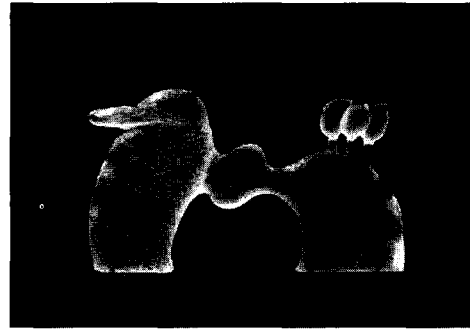


그림 4. 겨울산 · 500×300×50mm



그림 2. 그는 사랑이시라 · 95 x 95 x 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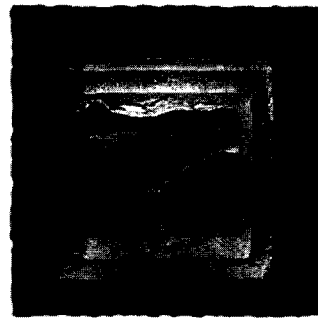


그림 5. 겨울새 · 95×95×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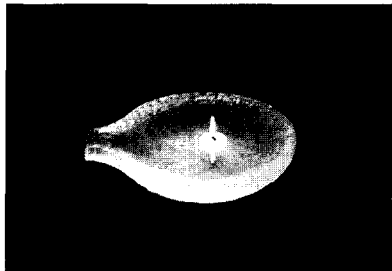


그림 3. 노아 300 x 250 x 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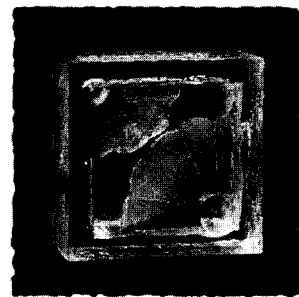


그림 6. 냉정한 허브 · 95×95×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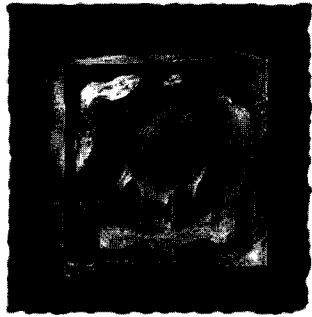


그림 7. 겨울나무 II · 95×95×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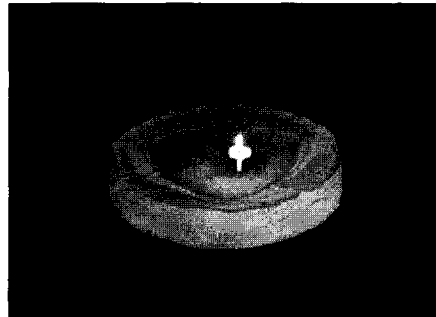


그림 8. 마리아 · 300×300×50mm



그림 8 .
마르다 · 300×300×50mm



그림 9 .
사랑뿐 · 95×95×50mm×9ea